

2007년 2월 22일

서울, 웨스틴조선호텔

# 2007년 제3차 KOPEC 아태전략포럼

## - 결과 보고서 -



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

## 1. 개 요

- 주 제: 아·태지역협력 동향 점검
- 일 시: 2007년 2월 22일 (목) 07:15 ~ 09:00
- 장 소: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
- 주 최: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(KOPEC)
- 프로그램
  - 사회: 양수길 KOPEC 회장
  - 07:15 ~ 07:40 조찬환담 및 개회
  - 07:40 ~ 08:25 주제 발표
    - 아·태경제협력체(APEC)  
: 성문업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지역협력과장
    - ASEAN+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(EAS)  
: 주중철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 동남아과장
    - 금융통화 협력 부문  
: 문홍성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
  - 08:25 ~ 09:00 토론

## 2. 참석자: 총 15인

- 사회 및 발제자
  - 양수길 KOPEC 회장 (사회)
  - 성문업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지역협력과장 (발제자)
  - 주중철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 동남아과장 (발제자)
  - 문홍성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 (발제자)

o 참석자

- 김상겸 KOPEC 사무국장
- 김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팀 연구원
- 박명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
-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
- 성극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
- 심명섭 APEC교육재단 협력팀장
-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
-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
- 이정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
- 임찬석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부장
- 하병기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실장

3. 주요 내용

---

---

개회: 양수길 KOPEC 회장

---

---

- o 지난 1년간 아태지역협력체의 동향 및 향후 전망, KOPEC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부 담당 과장이 발표해 줄 것임.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
- APEC, ASEAN+3/EAS는 각각 기구별 외교통상부 담당 과장이 발표
- 국제경제협력분야에서 실물과 금융통화 부분이 두 트랙으로 움직이므로 금융통화부문 협력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따로 발표해 주실 것임.

---

---

## “아·태 지역 경제통합의 새로운 전기”

발제 : 성문업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지역협력과장

---

---

- 2007년에는 APEC 프로세스(의장국: 호주)가 상당히 빨리 시작되었음.
  - 기존 11월에 개최되던 정상회의가 올해는 9월에 개최될 예정
- 현재 APEC에서는 아·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으로서 무역·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, 안전한 역내 교역여건 형성,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, 주요 현안 과제(에너지 등)에 대한 협력, APEC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.
- 무역·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
  - 아·태 자유무역지대 (FTAAP: Free Trade Area of the Asia-Pacific)
    - 2006년 정상회의에서 "장기적 관점에서 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2007년 정상회의에 보고"하도록 합의
    - 미국이 제안하였으며, 미국은 FTAAP가 WTO 프로세스와 비교해 목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
    - ABAC은 양자간 FTA 폭증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FTAAP를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제기하고 있으며, 학계 쪽에서는 프레드 버그스텐 IIE 소장을 중심으로 FTAAP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.
  -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, TFAP2(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) 추진 일정이 마련되어 2010년까지 역내 거래비용을 5% 추가 감축하는 것이 목표. 무역원활화는 구조개혁 논의와도 연관됨.
  - FTA 표준모델안 작업이 2006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역내 양자 FTA의 수렴화를 목표로 2008년까지 가능하면 많은 표준모델안을 만들려 하고 있음. 작년에 6개가 합의되었으며, 올해는 8~9개의 합의가 기대됨.

-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가 미국, 일본을 중심으로 적극 진행될 것으로 예상
- o 안전한 아·태 지역 교역여건 형성
  - 크게 대테러와 보건 및 재난대응 분야가 있음.
  - 우리나라는 2007~2008년 대테러 작업반 의장국으로서 기여할 것임.
- o 개도국 능력배양지원(Ecotech 분야)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이 APEC 지원 기금(ASF)이 많이 확충되었다는 사실. 우리나라는 2007~2009년 200만불 공여 예정
- o 올해 눈에 떨만한 이슈는 에너지임. 2006년 정상합의에 따라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촉진하는 정책과 기술을 통해 기후 변화 등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임.
- o APEC의 강화
  - 기존 APEC 사무국은 회원국 활동을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였으나, 최근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이를 전문화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음.
  - APEC 사무국장을 기존 의장국 파견형태에서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제도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올해 중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. 합의가 되면 2009년부터 본 제도에 따라 사무국이 운영될 것임.
- o APEC 회원국
  - 올해 모라토리움이 끝나게 되므로,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일지 현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할 것임.
  - 현재까지 인도, 파키스탄, 캄보디아, 파나마, 코스타리카 등 10개국이 가입신청을 해 놓은 상태

○ 우리나라의 대응전략

- 무역·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관련, FTAAP를 포함한 아·태 지역 경제통합 방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, 2007년 7월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IAP 수검, 제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작성과정에 참여할 것임.
- 인간안보/경제기술협력/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임.

---

---

**“ASEAN+3/EAS 정상회의 성과 및 후속조치”**

**발제: 주중철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 동남아과장**

---

---

○ ASEAN+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결과

- 올해 1월 ASEAN+3 정상회의에서는, 2007년 11월 싱가포르 정상회의시 채택 예정인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의 의의를 평가하였으며 협조를 당부. 기존 17개 협력 분야에 여성, 광물, 농촌개발/빈곤경감, 재난 대응의 4개 분야 추가.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
- 한·ASEAN 정상회의에서는, 2005년 채택된 한·ASEAN 행동계획의 구체적 이행보고서 채택. 당초 2006년 말까지였던 한·ASEAN FTA 협상시한을 서비스 투자 협정과 관련된 협상 지연으로 인해 2007년 11월로 연장
-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통상적으로 비공개로 진행. 「에너지 안보에 관한 세부(Cebu) 선언」이 채택되었고, 일본 측이 에너지 전문가 인적교류 및 에너지 분야 50억불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역내 국가의 호응을 얻었으며,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(CEPEA) 민간 연구에 합의

○ 우리나라 주요 제기 사항

- ASEAN+3 정상회의에서는, ASEAN+3 과학영재센터 설립 제기 및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(EAFTA) Study Phase II 주도

- 한·ASEAN 정상회의에서는, 한·ASEAN 센터 서울 설립을 제안하였고, 마약통제사업에 대해 우리측 관심 표명

#### ○ 주요 성과

-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 제안.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설립 추진에 기초가 될 민간연구에 대하여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했으며, ASEAN+3 과학영재센터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
-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
- 한·ASEAN FTA의 실현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의지 확인
- 對ASEAN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제의
- 한·ASEAN 센터 설립 제안 및 지지 확보

#### ○ 우리나라 후속조치 계획

-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산업별 분야별 민간 연구 개시
- 한·ASEAN FTA 서비스 투자 협상 가속화
- ASEAN+3 과학영재센터 설립 추진. 2008년 경상남도에 설립하도록 협의 중
- ICT 분야 개발협력 사업 확대 방안 검토
- 한·ASEAN 센터 설립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 강화

#### ○ ASEAN+3와 EAS

- ASEAN+3와 EAS에는 중국과 일본의 라이벌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.
- 중국은 ASEAN+3를, 일본은 EAS를 지지
- ASEAN 내에서는 말레이시아, 캄보디아, 라오스 등은 ASEAN+3를, 싱가포르, 필리핀은 EAS를 지지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, 2005년 정상회의를 통해 관계설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음. 2005년 ASEAN+3 정상회의의 선언문은 “ASEAN+3 협력이 동아시아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동력”이라고 언급하였고, EAS 선언문에서는 “EAS는 역내 공동체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”라고 평가

○ ASEAN+3와 EAS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

- ASEAN+3가 동남아 이슈에 치우쳐져 있고, 중일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입장이 모호해진 점도 있음.
-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ASEAN+3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지
- 두 협의체는 테러, 해적행위, 재난 등에 대한 공동 대응, 동아시아 역내 사회문화적 교류 증진, EAFTA와 같은 역내 다자경제협력체제 구축, ASEAN+3 시 정례화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동북아 3국의 협력 방안 모색, 북한 핵문제와 같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역내 국가의 지지 확보 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그 활용도가 높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

---

---

**“ASEAN+3/APEC 재무장관회의 성과 및 향후 방향”**

**발제 : 문홍성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**

---

---

○ 2007년 ASEAN+3 재무장관 프로세스 관련 주요 업무

- 선진화된 지역협력체제 수립(즉 CMI 다자화)에 관한 논의가 진행. 2006년을 기점으로 ASEAN+3를 통한 위기극복 단계의 협력은 사실상 완료
  - CMI 다자화 논의를 위한 기본원칙 및 방향에 대한 협의
  - 국내 의견 조율, 한일간 공동입장 수립 등을 위한 면밀한 검토 수행
-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(ABMI) 관련 논의 가속화
  - 신용보증·투자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며, 이를 어떻게 기구화할 것인가는 논의 진행
  - 예탁결제기구 관련, 동 아이디어를 발제한 국가로서 다른 나라를 설득하여 선제적 주도권 확보

- 동아시아 금융통화통합에 관한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
  - 궁극적으로는 기구화로 연결되므로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
  - 본 연구는 현재 일본이 이끌고 있으므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함.
- 우리나라의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
- 무엇보다 금융관련 기구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이들 중 어느 기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와 전략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

o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

- 2007년 APEC 재무장관회의는 8월 2~3일 호주 퀸스랜드에서 개최될 예정
- 공식 논의주제
  -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in the Public Balance Sheet
  - Deepening and Integrating Private Capital Markets
- 공식 주제 이외에 12개 공동 추진 과제를 채택했는데, 우리나라는 고령화 관련 이니셔티브를 제기하여 그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음.
  - 주제: 고령화가 재정 정책,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
  - 본 이슈를 개발하는 방식이 APEC 내에서 활동지향적(action oriented)인 이니셔티브의 훌륭한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음. 이 모델을 향후 모든 정책 이니셔티브(Policy Initiative)에 적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음.
  -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과제의 진행 프로세스
    - : 1단계 - (2005년) APEC 재무장관들, “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주선언”
    - 2단계 - (2006년) 학자들이 1년간 연구작업 수행 후 정책 연구결과를 장관 회의에 보고
    - 3단계 - (2007~2009년)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, 구속력 없는 정책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학자와 정부관계자가 직접 연구를 진행하여 최적관행(Best Practice) 또는 가이드라인(Guideline)을 발표. 3년 중

각각 1.5년 동안 1) 고령화와 금융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, 2)고령화와 재정정책(health care, pension 관련)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승인을 받음.

- : 5년 프로세스로서 단계적으로 활동지향적(action oriented)인 결과를 이끔.
- 즉, 장관들의 공동 recognition ⇒ literature review ⇒ policy guideline의 three-step approach

---

---

## 토론

---

---

### o 인력이동(labor migration)

- KOPEC에서 새로운 연구 과제로서 본 연구를 진행
-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PECC)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, 추후 APEC 과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
-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에서 고령화와 금융, 재정 정책을 연결시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,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적인 현상을 노동시장 등과 연결시키면 같은 측면에서 바람직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G-20에서는 작년 호주 주도로 '인구구조 변화와 이민'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.
- ASEAN+3에서도 노동력 관련 이슈가 노동장관회의 아래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협력 논의가 가능할 것

### o APEC 내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여부

- 중요한 주제이지만, 아직 APEC 내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.
- 에너지 이슈와 연계하여 청정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기대

### o APEC에서의 한국의 역할

-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슈를 개발해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고,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분야(예: 지적재산권)에 참여해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

o APEC 내 아·태 자유무역지대(FTAAP)의 논의 정도 및 이에 대한 의견

-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지는 않음.
- 2007년 APEC은 FTAAP의 타당성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 목표임. 그 이후에 구체적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
- 미국의 주도하는 것이 FTAAP를 통해 보고르 목표를 대체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피력되었으며, FTAAP는 논란만 되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됨.

o 역내 금융통화협력에 대한 질의

- 금융 협력시 외환자유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낙후된 자유화 정도가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, 우리나라 외환자유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화 정도는 상위에 속한다는 대답
- 달러가 빠진 아시아 통화협력 논의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, EMS(유럽통화제도)가 Euro로 연결되는 과정을 볼 때 굳이 역외 통화를 집어넣어야 통화협력에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 꼭 옳지는 않다는 대답

o ASEM 재무장관회의

- 우리나라가 2007~2008년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임.
- 격년제로 바뀐 후 첫 의장국을 맡는 것으로서 장관회의는 2008년 6월경, 그 이전에 두 번의 차관회의가 개최됨. 올해 6월경 1차 차관회의, 내년에 2차 차관회의가 개최
- 차기 정부의 첫 번째 대규모 국제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, 아시아의 경제금융통합 논의와 연결되어 유럽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대규모 학술대회가 열릴 것임.